



# 광복의 달을 맞아 당시의 간호사업을 회고한다

전북지부장 김 아 덕  
〈개정간호학교장〉

금년이 벌써 28돌을 맞는 광복절이다. 어느해나 다름없이 올해도 그 환희의 날을 회고해 보니 감회가 새롭기만하다.

본회로부터 8·15당시 간호사업 회고에 대한 원고 청탁을 받고 생각 하던중 우리 대한간호협회가 I.C.N. 가입시 그경로가 어떠했는지 내가 보고 듣고 느낀점을 아는대로 적어보기로 하겠다.

## 1. 일제의 간호사업

우리 한국 간호사업은 잘 아는바와 같이 1世紀도 못되는 짧은 역사이지만 다사다난한 길을 걸어왔다.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의 목적으로 교육과 의료사업을 시작해서 수준이 높은 서구식 간호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서양 간호원들만이 모여서 간호원회를 하던 것이 1923년에는 朝鮮간호婦들을 초대해서 참석케 했고 이회에 명칭을 朝鮮看護婦會라 칭했다. 그후 現 大韓看護協會에서는 이 年度를 대한간호협회 創立年度로 제정 하게 되었다. 한편 1910년 韓日合邦이 된후 行政 계통을 타고온 日本式 간호교육과 日本간호부와 朝鮮간호부가 같이 모이는 간호부회

의가 있어 두가지 계통의 간호부회가 성장하되 朝鮮간호부 자체만이 모이는 회가 없어 언제나 우리 단독의 간호부회를 원하던중 1945年 8월15일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고 日本 간호부들은 피란 보따리를 질머진채 현해탄을 건너가고 36년 동안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그 기쁨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

## 2. 해방후 첫번 모인 간호원회

1946年 7월에는 전국 간호원 면허소지자들 약 200명이 명동 천주교 문화관에서 처음으로 내 민족만이 모이는 감격스러운 자리를 가졌다. 비운의 38선으로 이북에 있는 등지들이 참석 못함은 진정 마음 아픈 일이었다. 그당시 회장은 보건후생부 간호사업 국장인 孫玉順 先生이 당선되었고 孫玉順 회장은 언제나 숙원이던 I.C.N 가입에 대해서 곧 착안을 하여 I.C.N 加入 신청서를 I.C.N 본부에 제출 하였다.

玉順회장의 명철함을 보아서 심사위원장은 무조건 인정을 하였고 1949년 I.C.N 총회 때 특별 초청키로 약속받고 귀국하였다 한다.

### 3. 일제시대 I.C.N 방청

1929년 캐나다 Montreal에서 모인 I.C.N 대회에 조선간호협회 대표로 李孝卿선생과 李金田선생의 外國人 Miss Shepping이 함께 참석했고 1937년에는 英國 런던에서 모인 I.C.N 대회에 그 당시 회장 李貞愛선생과 外國人 Ada Sandell과 Miss 로렌스가 참석 하였으나 I.C.N의 一國一會員權의 原則은 主權을 빼앗긴 우리 대표들을 실망케 하고 나라 없는 서러움을 뼈아프게 느꼈던 터이다.

### 4. 孫玉順先生 美國行政 시찰

1948年 美軍政이 물러나고 한국정부가 수립되었다.

美軍政 時代는 간호사업이 높이 평가 받아 간호행정이 중앙부서에서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국이었던 한국정부가 수립되면서 간호사업과로 내려 앉게 되었다.

간호사업과장이면서 간호협회장인 孫玉順先生은 3個月間 美國에 行政시찰을 가게 되었는데 그 때 美國에서 I.C.N 加入 심사위원장을 만나게 되었다고한다. 이때 간호협회 회장인 동시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간호사업과장인 孫先生은 유창한 영어로 한국간호사업 실정 그대로 즉, 일제 36年 동안의 간호원 자격 시험제도등을 설명했고 우리가 I.C.N 가입을 원하고 있음을 간곡히 부탁하였다고 한다.

물론 그때는 한국 간호사업이 여러면으로 보아 I.C.N. 에 가입할자격이 미달 된때 였으나 孫

### 5. I.C.N. 초청

그후 1949年 Sweden Stokolm에서 I.C.N 대회가 열릴때 한국 간호협회 대표를 특별 초청 하였다.

왕복 여비만 마련하여 기차만 하면 1주간의 숙식은 그 총회에서 부담 하기로 하고 초청 한 것이다. 우리 간호협회 동지들은 모처럼 초청받은 우리 대표를 보내기 위해서 독립국가 빈쪽으로써 참석할 희망을 가슴에 안고 두 사람씩(본인은 박요섭씨와 동행)작을 지어 이곳 저곳 아는곳(종합병원 혹은 개업 의사 병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모금을 하였고 회원들의 성금과 합쳐서 왕복 여비를 마련하였지만 웬일인지! 무슨마의 장난인지 대표의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예정 날자에 떠나지 못하면서 우리가 늦었다는 전보를 그곳에 보냈다. 늦어도 꼭 오라는 그곳의 회신이 왔다. 하루 이틀 애를 써 보았지만 비자는 나오지 않고 벌써 회의는 시작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눈물을 머금고 우리 대표는 사실상 참석치 못한다고 전보 쳤다. 며칠후 I.C.N 본부로 부터 전보로 통신이 왔다. 당신네 나라 대표는 비록 참석하지 못 하였지만 I.C.N 금번 대회에서는 정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 시키었다는 소식이 왔다. 이 얼마나 원하던 I.C.N 加入인가! 그렇게도 소원이던 I.C.N 가입이 우리 대표가 참석치도 못한채 정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니 기쁨과 슬픔이 엇 갈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부 수립후 초대 보건부장관이었던 구

---

영속 장관을 모시고 전국의 회원들이 창경원 비원에 모여서 I.C.N 가입 축하회를 가지었다. 그 여비 금액은 비행기표 준비로 팔러로 바꾸었던 것이 팔러가 배로 오르는 바람에 그 금액은 배로 증액 되어서 그후 피란지에 가서 협회 살림에 도움이 되었음을 기억한다.

## 6. 6.25이후의 간호사업

1950年 6月25日 뜻하지 않았던 공산군들의 침략으로 간호사업에도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간호사업과는 정부의 피난에 따라 부산으로 가서 업무를 보았다. 간호원들의 많은수가(숫자미상) 육군 간호장교로 지명하여서 부상병을 간호하였다. 간호교육 기관은 부산, 거제도, 제주도등 피난 해서 까지도 그곳에서 간호교육을 계속 하였다.

이 동란으로 인하여 간호원들의 인적 손실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우방 여러나라(미국,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화란, 벨기, 이탈리아, 타일랜드,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토이기, 애급, 회랍, 에치오피아)등 16개국에서 간호장교 혹은 군속 또는 民間 고문등 동란중 우리나라에 와서 물질과 기술과 정신으로 우리나라와 간호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우리 간호사업 발전에 크게 활약한 그들에게 감사해 마지 않는다.

## 7. 정 회원 자격으로

### I. C. N. 첫 대표 파견

피난 생활인 1953年 5月 부산 광복동 中央敎會에서 많은 회원들이(약250명)모여서 간호협회 총회를 피난지에서서나마 성대히 열었다.

나이팅게일 생일 축하식도 가졌고 또는 20年 이상 간호사업에 몸 받쳐 수고한 有功者들(李貞愛 李金田 金正鮮 元利吉 崔月南)諸氏에게 표창장과 기념배달도 증정 하였다. 그 당시 안전중 흥미있는 것은 역시 I.C.N. 대표 선출전(회장이 의 선출)이었다. 그 당시 會長 金温膾 사회로 회의는 진행 되었다.

I.C.N. 대표를 선출한바 김은순회장과 이영복 부회장 두분이 선출되어 I.C.N.의 정 회원국으로 加入한후 처음으로 태극기 밑에서 포결련을 가질 수 있는 대표로 참석케 되었다. 그 당시 I.C.N. 大會 장소는 南美 Brazil 이었고 그후 계속 4년 마다 우리 대표들이 참석하게 되었다. 위와같이 한국 간호사업이 50년 동안 걸어 오면서 많은 애로와 기쁨과 잇을 수 없는 역사중의 하나로 기억해 보면서 지금의 간호사업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역시 간호사업 발전에 수고하는 여러 동지들 또는 후배들 에게 과거를 회고하는 말을 전함으로 조금이라도 완고가 되길 바라는 바이다.